

‘X잠/참-’의 교육방안*

金 希 京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the fused form ‘zan/chan’ for the strategy of Korean Educatio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text which is deals with the form of ‘zan/chan’. The issue addressed in this study is how to teach ‘zan/chan’ effectively, whi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zan/chan’ paradigm. Couples of forms are a unique among the fused form paradigm. For instance, ‘Kwanchan-, Jeumzan-, Kuichan-’ has changed morphologically and semantically so these forms could not be reduced the original form.

To sum up, the primary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ve way of teaching ‘zan/chan’, which is reconstructed to new form after morphological and semantical chang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zan/chan’ should be incorporated in curriculum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learner, at least an intermediate level. At the same time, the paradigm of ‘zan/chan’ should be introduced to students on a unique curriculum. Additionally this paper is focused on Korean education, including pedagogics, of the fused form ‘zan/chan’.

Key words: Korean education, fused form, zan/chan, pedagogics

1. 들어가며

본고는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다른 구문과 구별되는 ‘X잠/참-’의¹⁾ 특성을 이용한 교수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X잠/참-’는 형태론적·의미론적 변화를 겪은 형태로 보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어휘적 특성에 대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다른 구문과 대비되는 ‘X잠/참-’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 본고는 2013년 멕시코 테픽에서 개최된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기초로 한 것이다. 학술대회를 전후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1) 본고에서 말하는 ‘X잠/참-’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김희경(2010: 98)－방언형(마뚝잠다, 하참다) 포함)

(ㄱ) X잠-: 갈참다, 개참다, 그닥참다, 그렁참다, 깔밧참다, 꿀갈참다, 꿀답참다, 남부럼참다, 달갑참다, 되참다, 마뚝참다(모뚝참다), 맛갓참다, 시답참다, 식참다, 씨식참다, 씨참다, 야젓참다, 어쭙참다, 오죽참다, 울곤참다, 의젓참다, 잠참다, 적참다, 점참다, 하참다(언참다), 한갓대참다

(ㄴ) X참-: 가당참다, 켜참다, 괴이참다, 괴참다, 귀참다, 낙낙참다, 당참다, 대단참다, 마땅참다, 만만참다, 변변참다, 별참다, 수월참다, 시원참다, 심심참다, 아슴참다, 안심참다, 엔간참다, 여의참다, 우연참다, 웬간참다, 조려참다, 조련참다, 째질참다, 째질참다, 째째참다, 칠칠참다, 편참다, 편편참다, 하참다

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2.에서는 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X궤/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3.에서는 융합이 일어나는 언어 환경을 살펴보고 그 결과 생성된 어미 ‘X궤/궤-’의 활용 양상에 대해 논하겠다. 4.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융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융합형을 실현 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피교육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순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고는 ‘X궤/궤-’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효과적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육 현황

한국어교육은 최근 의사소통 기능과 문법을 통합해서 교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X궤/궤-’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대체로 ‘X궤/궤-’의 형태론적·의미론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융합 현상에 대한 인식 부족, 교재 내용의 부적절성, 교사들의 비효율적 지도방안 등에서 비롯된다.

현행 한국어교재에서 ‘X궤/궤-’이 소개된 것은 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서이다. 이것은 문법 항목의 배열 준거를 고려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꼽을 수 있다. 김유정(1998)과 이해영(1998)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있었듯이 현재 ‘X궤/궤-’의 학습 시점을 중급 이상의 학습자로 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물론 사용빈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급에서의 학습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난이도, 학습에 따른 부담, 타 문법 항목과의 연계성 등을 생각할 때 중급 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X궤/궤-’은 원형 ‘-지 않-’이 형태적, 의미적 변화를 겪어 생성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이다.

융합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어휘화, 문법화, 연성,²⁾ 합성³⁾ 등과 구분 짓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음 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자.⁴⁾

- (1) ㄱ. 어제 저녁 → 엿저녁, 쓰레기 받기 → 쓰레받기
- ㄴ. 밤사이 → 밤새, 할머니네 → 할먼네
- ㄷ. 젊지 않다 → 젊잖다

2) Matthews(1974: 113)에서는 연속되는 두 모음이나 자음의 연결 과정에서 한 음소가 완전히 탈락하면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융합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다시 내적 연성(internal sandhi)과 외적 연성(external sandhi)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단어 내부에서 융합을 경험하는 것, 후자는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 홍종선 외(2006)에서는 융합 합성어의 예로 ‘놀고 먹-, 타고나-, 먹고 살-, 감돌-, 굶주리-, 얹매-’ 등을 제시하였다.

4) 본고에 제시된 예는 21세기 세종 말뭉치의 용례이다.

ㄹ. 때문에 → 땀에

(2) ㄱ. 그럼, 나 엇저녁에 왔네.(해방전후, 1992)

ㄴ. 빗자루로 방을 쓸고 그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아서 버려라.(컴퓨터 이야기, 1992)

ㄷ. 내가 그 떡을 오래도록 ‘주악다리 할면네’라고 부른 것은 그 달콤하고 고소한 떡 맛 때문이기도 했다.(가을에 만난 사람, 1990)

ㄹ. 그래서 여기는 다 점잖은 사람만 있으니까.(남녀평등과 인간화, 1995)

ㅁ. 점잖게 애길 할려니까.(언어와 사회, 2002)

(3) ㄱ. 발령이 이곳으로 났기 땀에 저 혼자 와 있는 거예요.(무진기행, 1987)

ㄴ. 뭘 땀에 남의 걸 빼앗아 오니?(바닷가 아이들, 1988)

ㄷ. 현금 좀 쥐어볼 일이 생겨 혈레는 걸 몇 때메 난리여.(당진김씨, 2001)

ㄹ. 나 때메 일자리를 놓친 게 틀림없구먼.(당진김씨, 2001)

ㅁ. 우습고만요, 그래두 우리 땀시 사는 놈들이 많당께.(어둠의 자식들, 1980)

위 (1ㄱ)는 명사와 명사의 복합 구성, (1ㄴ)는 파생어, (1ㄷ)는 구 구성, (1ㄹ)는 곡용에서 각 음절의 간소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1ㄱ)의 ‘엇저녁’은 [어제]#[저녁], [어제 + 저녁], [어제 저녁]을 거쳐 [엇저녁]으로 실현된다. 자립 요소인 ‘어제’가 의존요소 ‘엇-’으로 바뀌어 ‘엇저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ㄱ-ㄷ)는 (2ㄱ-ㄱ)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ㄹ)의 ‘때문에’는 (3ㄱ-ㄴ)의 ‘땀에’와 (3ㄷ-ㄷ)의 ‘때메’, (3ㄹ)의 ‘땀시’와 같이 실현된다. 이것은 구어(colloquial)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빠른 발화에서 고빈도의 실현을 보인다.(김성규(1999)) (3ㄱ-ㄱ)는 인접 요소의 의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소화된 것이다. 융합 현상은 이와 같은 형태적인 경계 삭감을 통해 일어나는 음절의 간소화 현상과 관련된다.⁵⁾ 그러나 융합은 인접한 요소들 사이의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관련성(relevance)을⁶⁾ 동반해야 한다. (3ㄱ-ㄴ)에서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때문’과 ‘-에’의 의미적 관련성으로 인해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인접 요소들 사이의 형태 경계가 흔들리면서 선후행 요소의 축약, 탈락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시 재구조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다.⁷⁾ 그러나 융합 현상은 이런

5) 음운의 단축(abbreviation), 축약(contraction)의 결과는 두자어(acronym), 혼효(blending), 언어(collocation), 관용 표현(idiomat ic expression)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혼효에 대해서는 김완진(1973), 이익섭(1981), 이승재(1983)를, 언어는 김진해(2000)을 참조. 혼효는 인접한 구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접에서 융합과 구별되며, 언어는 통사 구성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파생적 기능을 갖지 않으며 문법화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융합과 각각 구분된다.

6) 이익섭·임홍빈(1983: 150-151) 참조.

7) King(1969: 39)에서는 기저형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재구조화(relexic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논의에서는 최명옥(1993)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를 통해 공식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탈락과 축약에 의한 음절의 삭감으로 원형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본다.

외형적 변화에 더하여 의미의 변화를 겪는다. 준말과 합성어의 논의에서 함께 다루어져 온 융합은 전자처럼 형식의 간소화를 겪으면서 여기에 새로운 어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가령 ‘점잖-’은 원형 ‘젊지 않-’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형으로의 교체가 불가능해진다.⁸⁾ 다시 말해 (2ㄷ-ㄷ)의 ‘점잖-’은 형태적·의미적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다.⁹⁾ 이와 같이 형태·의미론적 어휘화를 통해 이루어진 융합형은 원형으로의 환원이 어렵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 전략이다. 체계적인 교육안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보다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담당 교원들 역시 준말, 합성, 융합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융합형 ‘X잖/찮-’의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에서의 분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원혜영(2011: 316)에서 ‘-잖아요’가 목표 학습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6종의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4종의 교재는 추가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들 교재에서 제시한 ‘X잖/찮-’의 어휘 의미는 ‘대화 상대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상기시킴, 이유 제시, 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습 목표에 따라 ‘X잖/찮-’의 학습 시기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등의 교재에는 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X잖/찮-’을 제시하고 있다. 초급 학습자에게 ‘X잖/찮-’을 교육시키는 것은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이것은 ‘X잖/찮-’의 학습이 형태적, 의미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므로 중급 이상의 레벨에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X잖/찮-’을 초급 과정에서 소개한 교재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¹⁰⁾

3. ‘X잖/찮-’의 활용 양상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 ‘X잖/찮-’는 통사적 구 구성에서 이루어진 융합형이다. 교수 항목의 배열 준거는 2.에서 언급한 빈도수와 난이도외에도 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과 과제, 학습자의 기대 문법, 연계성, 체계성, 학습과 교수의 용이성, 일반화 가능성 등이 추가 고려사항이다.¹¹⁾

8) 안명철(1992), 이필영(1995)에서는 이런 성질을 고려하여 융합형을 환원적 융합형과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이지양(1998: 33-39)에서는 형태론적, 통사론적 차원의 융합이냐에 따라 내접 구성의 융합과 외접 구성의 융합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또한 형식의 변화만 일어난 융합형을 단순 융합형,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얻은 융합형을 진진된 융합형으로 보아 융합의 결과가 어휘적 양상을 띠면 어휘적 융합형, 파생 접사나 굴절 접사의 모습을 가지면 형태적 융합형으로 본다.

9) ‘점잖-’은 ‘[젊-+지+아니-+하-]’에서 어휘 의미적 변화를 입은 융합형이다. ‘점잖-’은 어휘화를 통해 ‘몸가짐이 묵중하고 의젓하다, 품격이 야하지 않고 고상하다’는 새로운 어휘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우연찮-, 어쭙찮-, 달갑찮-, 시답찮-’ 등은 ‘우연하지 않-, 어쭙지 않-, 달갑지 않-, 시답지 않-’의 원형과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잖-’과는 구분된다.

10) 원혜영(2011: 320)에 의하면 부산대 한국어 교재에서 ‘X잖/찮-’이 확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로 초급 과정에서 소개하였다.

먼저 빈도수 및 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에 대해서는 ‘X째/째-’의 실현 빈도수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일정부분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난이도와 학습자의 기대문법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X째/째-’의 학습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초급과 중급 전반에서 교육되는 문법적 원리와 중급 후반과 고급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문법 제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X째/째-’의 실현양상을 살펴보면서 후자의 문법적 제약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은 높은 관련성을 가진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무엇을 먼저 배우고 싶어하는 지도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응용 효과가 큰 것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가능한 한 쉬운 항목부터 제시해야 학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X째/째-’의 실현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논제를 중심으로 한 용례 분석을 실시한다.

- (i) 원형으로의 환원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ii) 새로운 어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iii) 범주의 변화 여부를 다룬다.
- (iv) 사전에 표제어(headword)로 등재되어 있는지 살핀다.
- (v)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실현 빈도를 조사한다.

‘X째/째-’의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원형과의 교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원형과 교체가 가능한지에 따라 단순한 외형적 변화를 겪은 형태인지 융합을 겪은 형태인지 판별 가능하기 때문이다.¹²⁾

- (4) ㄱ. 병무청 위치를 물어보니 귀찮다는 듯 “용산구 후암동에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02)
- ㄴ. 공연히 거북이만 귀찮게 한 것이지 그게 살려준 것입니까?(현대불교신문, 1995)
- ㄷ. 귀찮았던 거죠,(대학생활, 2003)
- ㄹ. 무조건 외우는 것도 귀찮았구,(대학생활, 2003)
- ㅁ. 얼마나 귀찮겠는가.(미학 오디세이, 1994)

11) 이해영(1998), 김유정(1998), 성기철(2002), 이미혜(2005) 참조.

12) 다음에서 ‘X째/째-’와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a) <u>괜찮다</u> | - | 관계하지 않다 |
| (b) <u>jem</u> | - | 젊지 않다 |
| (c) <u>귀찮다</u> | - | 귀하지 않다 |
| (d) <u>시원찮다</u> | - | 시원하지 않다 |
| (e) <u>편찮다</u> | - | 편하지 않다 |
| (f) <u>적찮다</u> | - | 적지 않다 |

비. 다소 귀찮더라도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위와 같은 속성을 감안하여 대출금의 기간을 연장할 때에 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금융 97년 1월호, 1997)

(5) ㄱ. 가방에 넣어 드리자 뭐가 이리 많냐고 하면서 불고기는 노인들은 이가 시원찮아 잘 먹지 못 하니 좋아하지 않으신단다.(좋은 생각, 2000)

ㄴ. 머리는 어느 때보다 맑으며, 평소에 시원찮던 몸은 아슬아슬한 힘으로 팽팽하게 시간을 버텨준다.(그대의 차가운 손, 2002)

ㄷ. 버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 차량행렬 때문인지 속도가 시원찮았다.(단힌 교문을 열며, 1990)

ㄹ. 글썽, 처음부터 보기에 시원찮더라니.(피리 부는 소년, 1991)

(6) ㄱ. 술이 딱 떨어지면서 손님이 나가면 주인은 편찮은 거 아십니까?(낮선 여름, 1991)

ㄴ. 이번 추석 때 편찮은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리라고 좀 더 생각을 해서 보냈다고 한다.(만팔과 함께 춤을, 1994)

ㄷ. 그는 언젠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좋은 생각, 1999)

ㄹ. 한 날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아침을 늦게 먹었다.(이사 가던 날, 1991)

ㅁ. 아버지가 지금의 내 나이 스물 남짓이었을 때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셨다고 한다.(좋은 생각, 1999)

위 (4ㄱ-ㄷ)의 ‘귀찮-’은 원형 ‘[귀(貴)하- + -지 + 아니- + 하-]’와 달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의 어휘 의미를 가진다. (4ㄱ)을 원형으로 바꿔 쓴 ‘귀하지 아니하다는 뜻’은 어색한 양상을 보이므로 원형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ㄷ-ㄹ)을 통해 ‘귀찮-’은 선어말어미 ‘-었, 겠, 더-’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와 (6)의 ‘시원찮-, 편찮-’은 (4)의 ‘귀찮-’에 비해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현 빈도도 낮은 편이다.¹³⁾ 그러나 원형으로 환원된 구문 ‘시원하지 아니하-, 편하지 아니하-’는 어색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원찮-, 편찮-’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실현되지만 ‘귀찮-’에 비해 융합이 진전된 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7)과 (8-9)를 통해 ‘괜찮-’과 ‘적잖-’의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자.

(7) ㄱ. 구급 시험은 다섯 과목이니까 괜찮은데,(취업, 2003)

ㄴ. 그래서 가서 보면서 아 그냥 괜찮구나 괜찮구나 하긴 했는데,(학교 생활과 여행기, 2003)

13) ‘X찮-/찮-’의 실현 빈도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괜찮-(2,019회), 귀찮-(626회), 점찮-(436회)

하찮-(219회), 시원찮-(61회), 편찮-(50회)

적잖-(205회), 같잖-(20회)

- ㄷ. 그거 말고는 괜찮았고,(일본 여행기, 2003)
- ㄹ. 되게 괜찮았어 되게 좀 사고 싶을 만한 그런 기념품이었고,(일본 여행기, 2003)
- ㅁ. 조기 지금 추워서 떠는 사람 한마디 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언어와 사회, 2001)
- ㅂ. 능력이 된다면 부자라면 애들 셋도 괜찮겠지.(친구, 2004)
- ㅅ. 주먹밥도 괜찮더라고,(일본 여행기, 2003)
- ㅇ. 그건 괜찮았겠다,(주점 대화, 2001)

- (8) ㄱ. 자칫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잖다.(중앙일보, 1999)
- ㄴ. 남북문제와 군사적 투쟁에 있어 적잖은 오류를 범했다.(유재현의 역사 문화기행, 2003)
- ㄷ. 그러나 일본을 자주 여행하면서부터 평소의 그런 고정관념과 현실인식 사이에서 적잖은 곤혹감을 체험하게 되었다.(삶의 결 살림의 질, 1993)
- ㄹ. 독일과 화평하라는 여론마저 적잖았던 상황에서 ‘항전결의’를 밝힌 영국 전신내각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한겨레신문, 2001)
- (9) ㄱ. 시어머니 될 사람 때문에 적지않이 망설였다.(영웅시대 1, 1993)
- ㄴ. 영화인들이 적지않이 흥분해있다.(뉴스 피플, 1993)
- ㄷ. 그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적지않이 마음이 놓였다.(마이너리그, 2001)

위 (7)과 (8-9)의 ‘괜찮-’과 ‘적잖-’은 ‘[관계하- + -지 + 아니- + 하-]’와 ‘[적- + -지 + 아니- + 하-]’를¹⁴⁾ 각각 원형으로 갖는다. (7)의 ‘괜찮-’은 ‘X잘못/잘못-’ 중 최고의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회) 이것은 실제 구어에서 빈번한 사용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한편 (8)의 ‘적잖-’은 (5)와 (6)에서 살펴본 ‘시원찮-, 편찮-’보다 실현 빈도수 면에서는 앞서고 있다. 그러나 원형과 바뀌쓴 ‘적지 않-’이 자연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8ㄴ)와 같이 선어말어미와의 단편적인 결합 양상을 보이며 (9ㄱ-ㄷ)의 ‘적지않이’의 실현 등을 근거로 볼 때 ‘적잖-’은 융합이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실현 빈도만으로는 융합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7ㄱ-ㅇ)의 ‘괜찮-’은 원형의 기저 의미를 잃고 새로운 어휘 의미를 가진다. 원형으로의 바뀌 쓰기가 불가능하며 범주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 어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7ㄴ)의 반복 실현, (7ㄷ-ㅇ)에서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형 ‘관계하-’는 동사인 반면, 어휘적 융합형 ‘괜찮-’은 형용사로 문법 범주의 변화를 겪은 점도 다른 ‘X잘못/잘못-’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귀찮-, 시원찮-, 편찮-’과 ‘괜찮-, 적잖-’을 중심으로 ‘X잘못/잘못-’의 활용양상에 대해 간략

14) ‘괜찮-’의 원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다. 가령 ‘괜찮은, 괜찮레, 괜히, 괜한’ 등은 원형이 “空然-”에서 찾자는 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좀 더 보편적인 설을 바탕으로 “關係”가 ‘하- + -지 + 아니 + 하-’와 결합된 구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히 살펴보았다. ‘귀찮-’은 ‘시원찮-, 편찮-’에 비해 융합이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형으로 환원,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 ‘적지않-’의 실현 등을 통해 ‘적잖-’이 융합형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계하지 않-’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어휘 ‘괜찮-’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 원형의 어간 ‘관계하-’는 새로운 문법 범주를 갖게 된다. 원형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괜찮-’은 실제 구어에서도 빈번한 실현을 보여주며 선어말어미와도 자연스런 결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X잖/찮-’ 중 가장 안정적인 활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잖/찮X’의 활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X잖/찮-’의 실현 양상>

활용 종류	유형	원형	표제어의 어휘 의미 (lexical meaning of headword)	범주 변화	원형과 교체	실현 빈도수
X잖/찮-	괜찮-	【관계하-+-잖】 X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관계하- (동사)→형용사	불가능	2,019
	점잖-	【젊-+-잖】 X	언행이 묵중하고 야하지 아니하다.	구→단어	불가능	436
	귀찮-	【귀하-+-잖】 X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구→단어	불가능	626
	편찮-	【편하-+-잖】 X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다.	구→단어	불가능	50
	시원찮-	【시원하-+-잖】 X	①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다, ②몸의 일부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	구→단어-	불가능	61
	적잖-	【적-+-잖】 X	①적은 수나 양이 아니다 ②소홀히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	구→단어	가능	205 26(적지 않-)

‘-잖/찮X’의 분석을 통해 원형으로의 복귀, 새로운 어휘 의미, 사전의 등재 여부, 실현 빈도수 등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교육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령 하나의 어휘로 정착된 ‘괜찮-, 점잖-’은 원형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반면 ‘적잖-’은 원형 ‘적지 않-’과 교체 가능하다. 실제 ‘적지 않-’이 구어에서 실현(26회)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4. 교육 방안

여기에서는 융합형 어미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실제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시된다.(조성문(2000)) 한국어 교사들도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그것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잖/찮X’의 형성 과정, 빈도수, 등재 내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고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데 그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잖/찮X’의 대표적인 유형의 교육 순서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 <표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괜참-’은 ‘괜참아, 괜참으니, 괜참소’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며 특히 구어에서 고빈도의 실현을 보인다.
- (나) ‘괜참-’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어휘 의미를 가지며 선어말어미와도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인다.
- (다) 다른 ‘X참/참-’와 달리 ‘괜참-’은 원형의 어간 ‘관계하-’(동사)의 범주 변화를 겪는다.
- (라) ‘귀참-’은 ‘시원참-, 편참-’에 비해 융합의 진전을 보이는 형태이다.
- (마) ‘괜참-’은 ‘귀참-, 점참-, 편참-, 시원참-’과 함께 원형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지만 ‘적참-’은 ‘적지 않-’과 바뀌을 수 있다.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원형 ‘적지 않-’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와의 단편적인 실현 양상 등 ‘적참-’은 여전히 융합의 진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원형과의 교체 여부, 새로운 어휘 의미, 범주의 변화, 사전의 등재 여부, 실현 빈도수, 등을 중심으로 융합형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1>의 활용 양상을 종합할 때 융합형 중에는 여전히 변화의 진행 단계에 있는 형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 어휘로 정착된 ‘괜참-, 점참-’은 원형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반면 ‘적참-’은 원형 ‘적지 않-’과 교체시 자연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실제 ‘적지 않-’이 구어에서 실현(26회)되고 있어 ‘적참-’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지 않-’처럼 형태론적 어휘화를 겪었지만 실제 사용 빈도가 낮으며 의미 변화의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어미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X참/참-’을 소개할 때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괜참->점참->귀참->편참->시원참->적참-’의 순서로 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특히 선어말어미와의 자연스런 결합을 보이는 ‘괜참-’을 다른 ‘X참/참-’ 구문보다 먼저 제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한편 저빈도의 실현을 보이며 원형으로의 환원이 가능한 ‘적참-’의 경우, 일반화 가능성 및 교수 학습의 용의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시된다. 예를 들어 ‘적지 않-’을 먼저 교육시키는 방법, 그리고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용례 소개에서 그치는 방법 등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적참-’과 같이 형태, 의미적 변화의 과정에 있는 ‘X참/참-’는 학습자의 기대문법을 고려해 교과 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글을 나가며

본고에서는 어휘화와 문법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어에 나타나는 융합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융합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X참/참-’의 용례 분석을 통해 실현 양상을 종합하였다. 주로 원형으로 환원 여부, 새로운 어휘 의미의 획득, 범주의 변화, 표제어 등재 여부, 실현 빈도수 등을 기준으로 융합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X참/참-’은 형태적 경계의 약화로 음절의 간소화를 겪는데 그 결과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면서 재구조화를 통해 형태적, 의미적 변

화를 겪는다. 즉 외형적 변화만이 아니라 의미 변화를 동반하므로 단순한 음운의 탈락, 생략 등과는 엄연하게 다르다. 이런 융합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괜찮->점잖->귀찮->편찮->시원찮->적잖-’ 순의 제시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형태·의미론적 어휘화를 겪어 생성된 융합형이 원형과 뚜렷한 의미 차이를 가지며 실현 빈도수와 사전 등재항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접 요소 간 형태 경계가 삭감되면서 재구조화를 겪은 ‘괜찮-’은 문법 범주의 변화를 겪으며 선어말어미와도 자연스런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외형적 변화에 그친 ‘적잖-’은 새로운 어휘 의미를 얻지 못해 원형과의 교체가 가능하다. 이처럼 융합도가 높은 ‘괜찮-’을 다른 ‘X잖/찮-’ 구문보다 먼저 제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한국어에는 형태론적·의미론적 어휘화를 통해 실현되는 융합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형태는 활용 양상에 따라 융합의 다양한 진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X잖/찮-’에서는 융합형 ‘괜찮-’이 가장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적잖-’은 변화의 진행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원형과의 교체가 불가능한 ‘여보’도 새로운 어휘 의미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고빈도의 실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여보X’에서 ‘여보, 여보세요’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저빈도의 실현을 보이며 원형 ‘쌍이-’의 출현도 확인되는(1,404회) ‘쌔-’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X잖/찮-’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교재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괜찮->점잖->귀찮->편찮->시원찮->적잖-’ 순의 소개가 적절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X잖/찮-’의 한국어교육학적 활용, 가령 교안 및 교재 작성, 평가 기준의 마련 등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민정(2000), 「우리말 합성어의 어휘화 유형 분류」, 『동남어문논집』 10, 동남어문학회, 121-141.
 김상윤(2003), 「국어 어휘화 현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김성규(1999), 「빠른 발화에서 음절수 줄이기」, 『에산학보』 23, 109-137.
 김희경(2008), 「한국어 ‘X잖/찮-’의 통시적 변화 양상」,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283-324.
 김희경(2010), 『인용문에서 생성된 융합형 어미 연구』, 창문출판사
 김희경(2010), 「한자 어휘 교육 전략」, 『인문과학』 46, 인문과학연구소, 293-315.
 손세모들(1999)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국어학회, 213-240.
 안명철(1992),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원혜영(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구어체 종결어미 ‘-잖아(요)’ 연구」, 『영남언어문학』 79, 307-327.
 이 숙(2007), 「한국어에 나타나는 이동의 어휘화 형식」,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169-188.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이필영(1995),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탐출판사.
 조성문(2000),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 5-16.
 정연희(2001),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연구」, 한국외대 박사논문.
 정원수(1988), 「부정형태 ‘-잖(찮)-’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283-294.

- 최대희(2002), 「국어 풀이씨의 문법화 과정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명옥(1991),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홍윤표(2007), 「‘여보’의 어원」, 『쉽표·마침표』, 국립국어원.
- 홍종선 外(2006),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출판사.
- Hopper, P. J. & Traugott, E. C.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Marantz, A. (1985), *The Nature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the revision of PH. D. thesis of 1981)
- Matthews, P. H. (1974), An Instr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Morphology*, Cambridge Univ. Press.
- Spike, G. (2000), *Reconstructing grammar*, Comparative linguistics and Grammaticalization Theory, John Benjamins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43).